**바우저 시장은 5월 15일까지 공중 보건 비상 사태, 집에 머무르기 (Stay at Home) 명령과 비 필수적 사업체 임시 폐쇄를 연장하였습니다.**

오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확산과 계속 싸우기 위해 워싱턴 DC에 대한 국가비상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0년 5월 15일까지 연장하라는 시장 명령 2020-063을 내렸습니다.

바우저 시장은 COVID-19 공중보건 비상 사태에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사태를 연장하고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요건을 발표하였습니다. 새로운 명령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, 얼굴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:

• 호텔에서 근무하는 근로자, 손님 및 방문객;
• 택시나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, 민간 운송 업자
• 식품 판매 근로자 및 고객; 그리고
•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와 개인

워싱턴 DC에 거주하고, 일하고, 방문하는 개인들은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거주지를 떠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. 거주지를 떠날 경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, 식료품점이나 약국 등 필수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, 얼굴 덮개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. 또한, 마스크를 착용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를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비 필수적 사업체들은 여전히 임시 폐쇄가 연장될 것이며, DC 학생들은 계속해서 집에서 배울 것입니다.

바우저 시장의 명령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.

특별구의 대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면coronavirus.dc.gov를 방문하세요.